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 올롱가포 시내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걸어서는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소와 강의실은 subic holyday villas에 있으며 빌라 내부에 수영장, 세탁시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은 넓으며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게 휴식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수업	수업은 그룹수업 4시간, 1대1 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수업은 토익스피킹 2시간, 멀티미디어 클래스 1시간, Face to face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대1수업은 리딩 2시간, 단어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드트립	1주차에는 요트 투어, 2주차에는 필리핀 역사 유적지, 3주차에는 워터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요트투어와 워터파크에선 준비물로 수영복이 필요했고 이동, 입장에 관한 추가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날씨는 필리핀의 겨울 특성상 습하지 않으며 체류하는 기간 동안 비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24~31도 사이를 보였고 낮에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p>
안전	<p>수빅은 필리핀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저녁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며 숙소 내에는 가드가 상주하고 있어서 안전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은 전반적으로 오래 되긴 했으나 생활하는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 대부분 지역에 데이터가 잡히지 않으며 한정된 공간에서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월~목/일에는 담당 선생님이 저녁 10시 마다, 금/토에는 저녁 12시 마다 점호를 하였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X) 외부식당 () 기타 () 1주차에는 저녁마다 밖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2주차부터 마지막까지는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한식과 과일이 제공되었고 가끔 필리핀 음식도 같이 제공되었습니다.</p>
교통	<p>교통수단은 택시, FB, 지프니, 트라이시클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택시, FB를 불러야 하며 시내에서 현지인 거주지역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프니/트라이시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교통비	14600	Fb, 택시, 트라이시클
용돈/기념품	500000	식비, 기념품, 선물
병원비	137500	
합계	65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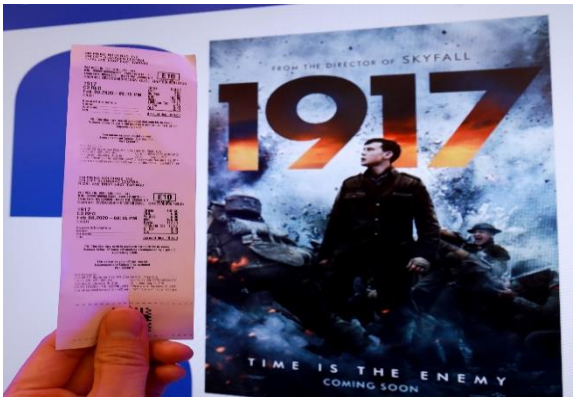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생각보다 일교차가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걸칠 만한 옷을 챙기는 것, 캐리어를 제외하고 공간이 넉넉한 가방이나 에코백, 노트북은 필수가 아니지만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은 필수이며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넉넉한 현금을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 한 달 동안 주어진 교재에 대해 모든 진도를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책의 내용 중 하나의 주제로 여러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지정된 시간이 금방 지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주어진 교재를 모두 나가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익 수업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 해결 유형만 간단히 배우기만 해도 한달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영어로 8시간 동안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를 두어 급하게 모든 것을 한번에 배우려는 자세 보다는 영어에 대한 감을 최대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추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한달 동안 잘 구성해서 귀국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들어왔던 여러가지 어학연수 프로그램과는 달리 영어, 문화교류 그리고 체험이 이렇게 잘 융화된 프로그램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좋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수빅 베이</p>	<p>요트투어</p>
	
<p>MT. SAMAT</p>	<p>SM, Central 영화관</p>
	
<p>숙소</p>	<p>Subic Adventure Water Park</p>